**[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MetaCampus를 오픈합니다~~~~!!!!! ]**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메타캠퍼스'를 드디어 오픈합니다!

미디어학과 가족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 공간으로, 365일 24시간 항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강의, 회의, 행사, 그리고 우연한(^^) 만남을 위해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유익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프닝 행사 일정을 공유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고!)

- 대상 : 미디어학과 교수, 조교, 재학생/휴학생, 동문

- 일정 : 6/22(수) 15:00 - 16:00

- 링크 : <https://url.kr/9yl4vo> (사전에 접속해 구경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단 학번과 실명으로 캐릭터 이름을 바꾸시고 해주세요. 당일도 동일합니다. 예: 21홍길동)

간단한 세레모니 후에 곧바로 김태용 교수님, 이두황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이번 학기 **진로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추후에 일정을 잡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방법 : 22일 오프닝 세레모니 직후 메타캠퍼스 내 교수연구실을 방문하여 화상으로 상담 진행

(앞에 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교수연구실 내 중앙 테이블에서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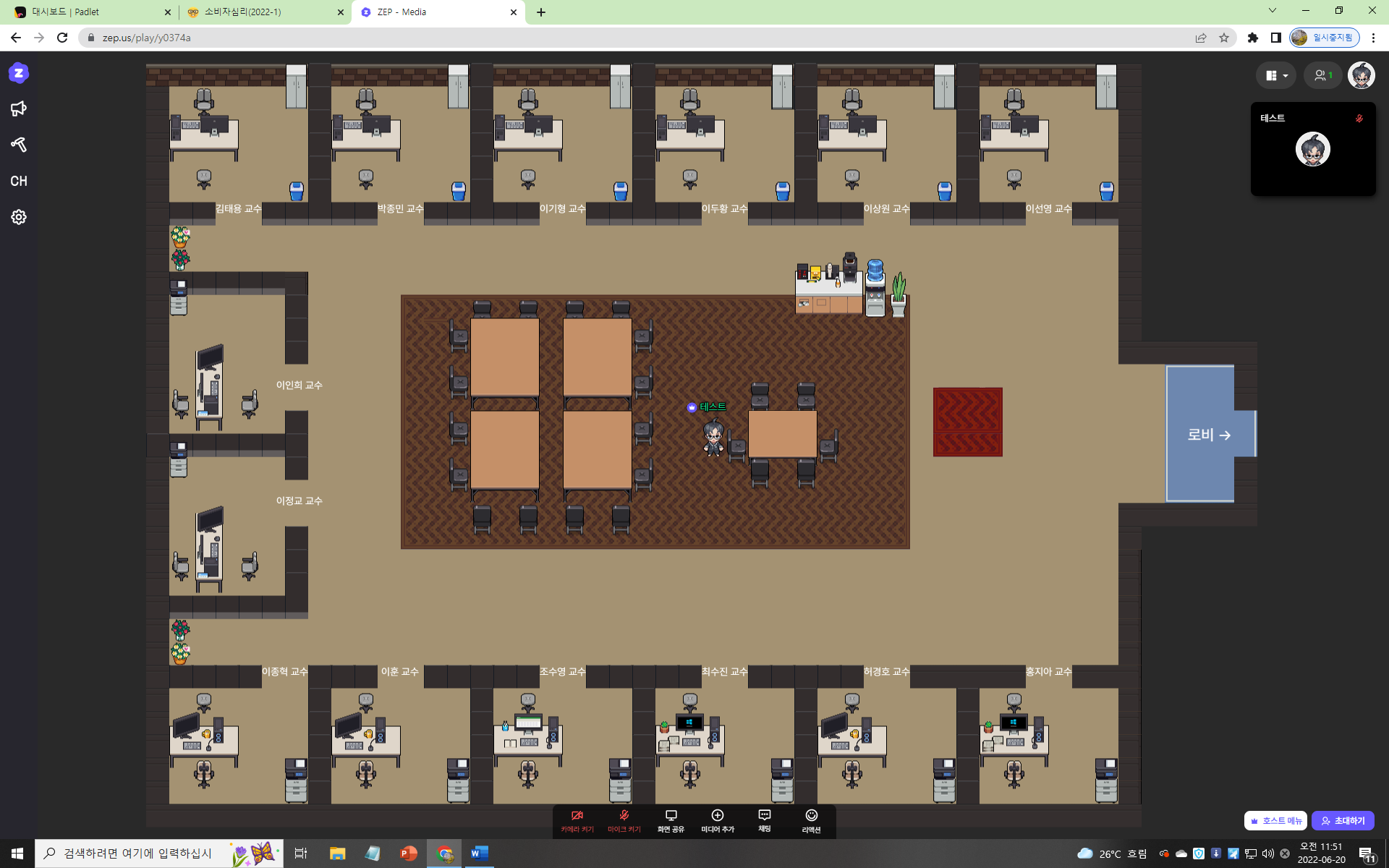
**첨부: 안내문/초청장**

**미디어학과 메타캠퍼스 1.0 완공**

다수의 강의실, 강당, 교수연구실, 상담실은 물론이고, 학회, 동아리, 동문회실, 실외정원까지를 포함한 미디어학과 메타캠퍼스가 완공되었다. 학부생 김민지, 김휘진, 박수정이 김태용 교수와의 독립심화학습을 통해 건축한 금번 1.0 버전은 그에 앞서 강의실 단위, 회의실 단위로 제작하여 단기간 사용해왔던 메타버스 제작 경험들을 기반으로 학과 전체 수준의 건축물로 집적해 구현한 것이다. 국내산 Zep 플랫폼을 사용한 것은 해당 플랫폼이 인원에 제한 없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국외 플랫폼 게더타운과 마찬가지로 강의와 회의에 필요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를 맡은 김태용 교수는 “동문들이 상시 왕래하며 재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한 단합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에 찬 설명을 하며, “플랫폼으로 사용한 Zep에 아직 기능적으로 불완전한 점들이 있어 학생들이 우회적인 해결법을 찾아나갔던 일들이 건축 과정의 정점이었다”고 술회한다. 미디어학과는 6월 22일에 간략한 완공 기념식을 메타캠퍼스 내에서 진행한 후, 곧바로 교수-학생 간 1:1 진로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 각각이 도착한 순서대로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다 교수 연구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 현실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텍스트, 컴퓨터, 스크린샷, 노트북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스크린샷, 모니터, 전자기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